다시 푼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⑨

7. 진심이란 망념이 없어진 것
(眞心息妄)

或曰 眞心在妄
혹왈 진심재망
則是凡夫 如何得出妄成聖耶
칙시범부 여하득출망성성야
曰古云 妄心無處卽菩提
왈고운 망심무처즉보리
生死涅槃本平等
생사열반본평등
經云 彼之衆生 幻身滅故 幻心亦滅
경운 피지중생 환신멸고 환심역멸
幻心滅故 幻塵亦滅 幻
환심멸고 환진역멸 환
塵滅故 幻滅亦滅 幻滅滅故
진멸고 환멸역멸 환멸멸고
非幻不滅 譬如磨鏡 垢盡明現 永嘉亦云
비환불멸 비여마경 구진명현 영가역운
心是根法是塵 兩種猶如鏡上痕
심시근법시진 양종유여경상흔
痕垢盡時 光始現
흔구진시 광시현
心法雙忘性卽眞 此乃出妄而成眞也
심법쌍망성즉진 차내출망이성진야

물었다. "진심이 망념(妄念) 속에 있는 것이 곧 범부인데, 어떻게 해야 망념에서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망심이 없는 그 곳이 곧 보리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하였으며, 경에는 '저 중생의 환신(실체가 없는 육신)이 사라지는 까닭에 환심(실체가 없는 마음)도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마음도 사라지는 까닭에 환진(실체가 없는 번뇌)도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번뇌가 사라지는 까닭에 실체가 없어 사라지는 그것까지도 역시 사라지고, 실체가 없어 사라지는 것까지도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아서 때가 벗겨지면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영가 스님 역시 '마음은 곧 주관이요, 법은 곧 객관이다. 이 둘이 모두 거울에 묻은 때와 같아서 때를 벗겨내면 비로소 광명이 나타나듯이 마음과 법을 함께 잊으면 성품이 곧 참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허망한 데서 벗어나 진실을 이루는 것이다.

或曰莊生云 心者 其熱燋火 其寒凝氷
혹왈장생운 심자 기열초화 기한응빙
其疾俛仰之間 再撫四海之外
기질면앙지간 재무사해지외
其居也淵而靜 其動也慁而天者
기거야연이정 기동야현이천자
其惟人心乎 此莊生 先說凡夫心
기유인심호 차장생 선설범부심
不可治伏 如此也
부동치복 여차야
未審 宗門以何法 治妄心也
미번 종문이하법 치망심야
曰以無心法 治妄心也
왈이무심법 치망심야

물었다. "장생(노자의 사상을 크게 선양한 장자)은 '마음이란 뜨겁기는 타는 불과 같고, 차기는 얼음이며, 빠르기는 위 아래로 쳐다보는 사이에 천하 밖을 두번이나 어루만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에까지 오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생이 먼저 범부의 마음은 이처럼 다스리기 어려움을 말한 것인데 종문(宗門 : 선종을 일컬음)에서는 어떤 법으로 망심을 다스립니까?"

대답했다. "무심의 법으로써 망심을 다스린다"

或曰人若無心 便同草木
혹왈인약무심 편동초목
無心之說 請施方便
무심지설 청시방편
曰今云無心 非無心體 名無心也
왈금운무심 비무심체 명무심야
但心中無物 名曰無心 如言空瓶
단심중무물 명왈무심 여언공병
瓶中無物 名曰空瓶 非瓶體無 名空瓶也
병중무물 명왈공병 비병체무 명공병야

물었다. "만약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초목과 같을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무심이란 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했다. "지금 무심이라 한 것은 마음의 본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무심인 것이다. 단지 마음 속에 물(物 : 생각)이 없는 것을 일컬어 무심이라 한다. 말하자면 빈 병이란 병 속에 물건이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하는 것이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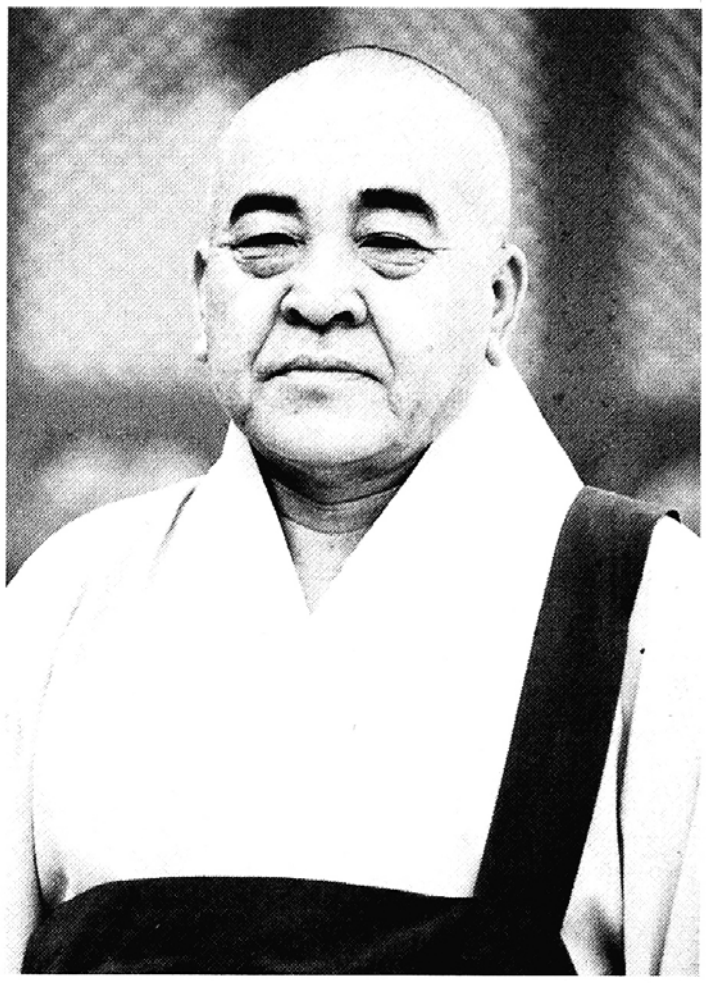
거울의 때 벗겨내면 광명 비추듯
허망한데서 벗어나면 참된 성품

김원각〈시인〉

큰스님 수행한담

"인과법은 세상에서

화정스님 〈포천 보덕사 주지〉



약력
- 1935년 전북 순창 生
- 55년 서옹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
- 백양사 선운사 은해사 등에서 강원 이력 마침
- 65년 이후 장흥 보림사 수락산 흥국사 양평 용문사 등 주지, 백양사 총무 백양사 주지
- 포천 보덕사 중창, 현재 보덕사에 주석

정초가 되어서인지 매일 절을 찾는 신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일년을 살아갈 일이 걱정 된다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정말 한심하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도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에 와서 근심 걱정과 한탄을 한다는 겁니다. 정초에 부처님께 근심 걱정을 털어 놓고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죽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후련한 그 마음이 오래 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법당에 앉아서는 마음을 정돈하지만 읍내에 들어서면 어느새 번잡스러워 진다는 겁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올 정초에 신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신도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도 불교가 잘 될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만 가슴이 작아 집니다. 나의 허물을 내 입으로 어떻게 변명할지 궁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호기롭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명이 넘는 스님 가운데 수십명이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잘 안될 불교라면 뭣때문에 믿습니까. 불교를 믿으면 되지 스님들 싸우는 일에 뭐그리 애를 씁니까. 잘 믿는 신도는 그 복으로 잘 될 것이고 싸우는 스님들은 그 업을 면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쯤되면 어지간한 신도들은 내 말뜻을 알아 듣습니다. 그래도 더 자세히 우리 불교의 폐단을 묻는 신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불교가 지금 앓고 있는 병 3가지를 말해 줍니다. 이 3가지 병은 불교가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속화 되면서 생긴 것인데 단순간에 고쳐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자들이 노력해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부르고 말 위험천만한 병입니다.

그 첫째 병은 승단이 너무 복잡하고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하나여서 모두가 일불제자인데 무슨 종단 종파가 그리 많은 겁니까. 옛날에는 선교양종으로도 불법은 맥을 이어 왔고 그 이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의존했습니다. 수행을 할 사람은 산중불교의 지킴이가 되어 산공부를 하고 경학을 연구하고 포교를 할 사람은 중생들 속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 패거리들도 아닌 승단에 왜 그리 갈래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종단에서 말썽을 일으켜 징계가 되면 저 종단으로 간판을 바꿔 걸고, 비구종단에서 물을 먹고 잘 살다가 어느날 속가 살림살이를 차리고는 종단을 바꿔서 계속 절집 사람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한 불교의 기둥인 승단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도덕이 허물어져 간다고 염려가 태산 같더니 요새는 승단에서도 위계가 많이 허물어 졌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심과 겸양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는 수행자 집단에서 위계가 없어 진다는 것은 수행의 맥이 녹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병입니다.

또 하나의 병은 문중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문중이란 원래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 그 법을 잇는 문하의 무리들이 있어 불교의 정신과 덕화가 더욱 현창되는 힘이 바로 문중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정과 돈과 권력 같은 세속의 논리들이 문중을 얽어매고 있기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출가하는 이들이 문중을 먼저 따진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문중이라는 인연의 끈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스님들이 존경 받는 그런 승단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만 강요하는 종교 설땅 없어요
교육-복지불자에 힘 모을 때
기복불교에서 지성불교로 탈바꿈

세번째로 지적하는 병은 관광수입입니다. 60여 사찰이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사찰은 모두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요 사찰들입니다. 문화재와 자연환경 역사가 가장 빛나는 절들이 관람료를 받음으로 해서 병이 든다는 겁니다. 관람료를 받는 절에서 그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도 교화와 포교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으니 도심의 포교당이나 빈한한 말사들만큼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미 전대의 스승들이 가꾸어 주신 명찰의 이름에 걸맞게 목마른 중생들에게 단비를 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받는 절들의 관람료 수입은 당해 사찰이 한푼도 못쓰게 해야 합니다. 대신 그 수입을 종단이 모아서 교육을 위해 포교를 위해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제양성에 그 정재들이 쓰여져야 합니다. 현대 한국불교는 건물 불사를 참으로 훌륭히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홀했던 것이 도제양성입니다. 아무리 절간을 잘 지으면 무엇에 씁니까. 그걸 잘 지키고 훌륭히 쓸 뒷사람이 없다면 오늘의 불사는 한낱 소꿉놀이에 불과합니다. 승려가 승려를 교육하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교육하고 받는데 재정이 적잖게 듭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매섭게 후진을 길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드는 재원을 관람료로 쓴다면 좋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선대의 스승들이 물려준 빛나는 유산으로 인해 얻은 수익금을 전체 불교가 똑같이 유용하도록 쓰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나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문중의 득세를 열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구는

한성대학교

1999학년도 1학기 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 모집>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불교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반을 개설 하였습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반에서는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의 전수, 각종 행정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사회의 시사문제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 아 래 · · ·

1. 기간 : 불기 2543년(1999년) 3월 셋째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1999. 3. 16~6.22)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시 50분까지
3. 모집인원 : 40명
4. 수 강 료 : 1인당 15만원(한 학기)
5. 접수기간 : 99년 2월 18일부터 ~ 99년 3월 11일가지 ※전화접수 가능함
6.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02)760-4401, 744-8480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과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 개설과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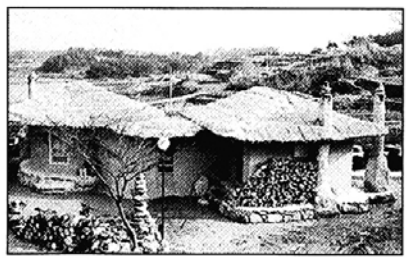
개설학기	교과목명	개설학기	교과목명
1학기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I (조직 인사, 재무, 회계)	2학기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II (정책, 복지, 지방자치))
	불교재산관리		불교 상담심리
3학기	불교와 정보화	4학기	불교와 사회문제
	불교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불교 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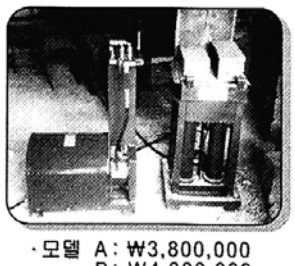
※ 매 학기 마다 사회저명인사의 특강이 있습니다.
1학기 특강 ① 한국 종교정책의 현황과 과제
②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서의 남북관계와 불교

황토 흙벽돌 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634-1237

탈종공고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예하 귀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1리 752
■성 명 : 박선동(불명:성 관)
■사찰명 : **행운사**

위 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2.

현대불교

·· 지사안내 ··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